

‘2012 최우수 학술지’

편집후기

2012년 최초로 시행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국내학술지 평가(이하 과총 학술지평가)는 그간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, 2013년 이후 정부의 선택적·차별적 학술지 지원정책이 모습을 드러내는 장으로 부각되면서 국내학술지 발행기관과 편집인들의 관심을 모았다.

이번 연도 과총 학술지평가 결과, 개별학술지의 총점은 각 학술지 발행단체의 자체평가보다 더 저조한 수준이었고 학술지 간 점수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. 또, 과총 학술지평가의 기준이 SCI(E), Scopus 등 국제색인 DB의 학술지 평가 / 선정기준의 체계적인 면에 대한 평가기준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아직은 국내학술지 국제화를 위해 학계가 부담해야 할 노력의 분량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.

그 와중에 국내편집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된 학술지들이 있다. 올해 과총 학술지평가 결과는 그 점수가 학회로 개별 전달되었기 때문에 개별학술지들의 상대적인 순위를 알 방법이 없는 가운데 지난 6월 25일 개최된 과총 ‘2012년 학술활동지원현황 및 국내학술지 평가 설명회’장에서 공개된 영문학술지와 국문학술지 가운데 각각 의학 분야와 비의학 분야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학술지 4종이 그렇다. 이들 4개 학술지는 아래와 같다.

- 1) 영문학술지 의학 분야: *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*
- 2) 영문학술지 비의학 분야: *ETRI Journal*
- 3) 국문학술지 의학 분야: *Infection and Chemotherapy*
- 4) 국문학술지 비의학 분야: 『한국환경농학회지』

이번에 창간되는 『과학편집』에 위 4개 학술지 편집인들의 글을 게재하게 되었다. 그 안에는 각 학술지의 발행기관과 편집인들이 오랜 기간 고민해온 문제들과 그 고민들을 던지고 일어서서 묵묵히 그리고 오래도록 걸어야 했던 고된 여정이 그대로 녹아 있다. 또한 그 여정에서 얻게 된 지혜 역시 넉넉히 공개되어 있다. 이들이 조금 앞서 경험한 고민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국내 타 학술지 편집인들의 현재 고민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오히려 국내학술지 편집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라 여겨진다. 또 국내학술지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자처한 과편협에게도 향후 전개해야 할 지원과 노력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.

마지막으로, 무척 바쁜 일정 중에도 당신들의 경험을 다른 편집인들과 공유해달라는 과편협의 요청을 흔쾌히 승낙하고, 경험으로 얻은 귀한 지혜들을 남김없이 글 속에 채워주었으며, 제시한 작성시한이 무척 짧았음에도 4종의 학술지 편집인 모두가 그 시한을 지켜 원고를 제출해주시는 것을 통해 ‘최고 학술지’라는 명칭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한 가지 비결을 보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음을 고백한다.